



## LDPE · PP 구매희망

페루사 각각 月 2컨테이너씩

페루의 Full Chemicals E.I.R.L.사가 저밀도 폴리에틸렌 2컨테이너 및 폴리프로필렌 2컨테이너를 1차적으로 98년 1월말까지 수입하고, 이후 매월 같은 물량을 지속 수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제품스펙

- Low Density Polyethylene(LDPE) for Lamination Met Index 3.5~5.0(구매량 : 매월 1FCL)

-Low Lineal Density Polyethylene

(LLDPE), to be uses with the LDPE(구매량 : 매월 1FCL)

- Polypropylen(PP), used for the injection spoons, knives, forks, etc.(구매량 : 매월 1FCL)

- Polypropylene(PP) forraffia fiber, used for the makeout of knited sack(구매량 : 매월 1FCL)

### ■연락처

○Full Chemicals E.I.R.L.

Las Moras #532, La Molina, Lima12, Peru  
Tel : (51-1)495-2167

Fax : (51-1)495-2508

Contact : Mr. Luic Dellepiane Cervelli



### 폴리에틸렌 공급업체 물색

타키사, 月 60톤 구매계획

터키의 플라스틱백 제조업체인 Koprul Plastik Ambalaj사가 한국으로부터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S0464 및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G03-5, F2-12을 매월 60톤 가량 수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심업체는 폴리에틸렌 kg당 FOB 및 CIF(양카라) 가격과 기타 공급조건을 수입상에게 송부하면 된다.

■ 연락처

- Koprulu Plastik Ambalaj San Ve Ticaret Ltd. Sti
- Uluyol Mevkii Kazan Ankara Turkey
- Tel : (90)312-814-3351
- Fax : (90)312-814-0590
- Contact : Mr. Ahmet Yilmaz(Manager)

### 日, 폐유리 포장합재로 이용

연간 1천4백40톤 처리능력 보유

건설계 폐기물 등의 중간처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오모리(靑林縣)의 하찌노헤센터(본사 아오모리현하찌사) 기쿠다(菊田시장)에서는 분별된 빈병 등의 폐유리를 재생아스팔트 골재로써 유효하게 이용하는 사업을 계획 추진중에 있다.

폐유리파쇄플랜트는 이 회사의 아스콘공장(아오모리현 고노베)에 부설된 것으로 처리능력은 연간 1천4백40톤(올해 6월에 준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하찌노헤시에서 분별회수된 빈병등은 각이 없는 「크리스탈샌드(사화유리)」로 가공된다.

또 고노베아스콘공장에서는 아스팔트덩어리와 금속을 까고 자르는 아스팔트를 파쇄, 가열해 참가제를 합해 재생아스팔트로 사지만 이때 사화(砂化)유리는 골재로써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용되었던 자연사(砂)에 대해서는 폐식유(바이오디젤연료)의 사용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국에 최초로 실시되고 지자체에 따라 폐식유 이용사율은 11월말경에는 전체 수집차 2백20대에 연료 교체를 완료시킬 예정이다.

등유의 원료는 튀김기름 등으로 실제 이 시내의 기업이 재생사업을 청부하고 가격은 1리터당 80엔과 경우에 따라서는 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등유를 사용했을 경우 차량배기가스중의 이산화탄소는 1비율 절감되고 또 이산화탄소의 절감효과에 첨가해 유황산화물도 거의 제로이고, 질소산화물도 경유의 약 6분의 1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日, 환경조화형 플라스틱 개발 착수

폐플라스틱, 톱밥 등 원료

일본공업기술원 물질공합공업 기술연구소는 이산화탄소(CO<sub>2</sub>)나 폐플라스틱, 톱밥 등을 원료로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사용이 끝난 폐기물을 토양중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시키고 일



부는 원료로 재이용하는 환경조화형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기술은 CO<sub>2</sub>나 폐플라스틱을 기본으로 하는 생분해성 지방족 폴리에스테르에 대해 열처리 등의 검토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해수난 담수 중에서의 내구성, 토양중에서의 생분해성 등을 시험해 성능이 우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로 2000년까지 실용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족 폴리에스테르는 내열성이나 강도에 약해 포장용 등으로만 응용범위가 한정돼 왔다.

이 기술은 지방족 폴리에스테르에 대해 재료원자의 진열방법이나 분자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 일반적인 플라스틱과 동등한 강도나 가공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폐기물 처리나 리사이클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제품의 제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의 전반에서 환경부하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이 플라스틱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일본, PP필름 감산 강화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악화 방지

일본 유화업체들이 식품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PP필름의 감산을 강화한다.

'98년 2월까지 비수기동안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악화를 막기 위해서다. 더욱이 '96년 가을부터 두차례의 가격인상안을 받아들인 수요업체들이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한 가격전가가 어려워지자 역으로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 배경이다. 대형 업체인 二村化學은 감산폭을 현재의 7~8%에서 '97년12월부터 '98년2월까지 15%로 확대키로 했다. 東洋紡도 '97년 12월부터 감산폭을 10%대로 높이기로 했다.

### 페루업체, 수입희망

사출성형기·에어필터 원자재

페루의 Competicion Automotriz사가 500g의 고무제품용 자동(또는 반자동) 사출성형기 1대의 수입을 원하고 있다.

사출성형기 외에 에이필터 제조용으로 0.27mm의 두께의 양철판과(Tinplate) 여과지도 찾고 있다.

또한 자동차부품 고무제품제조용 사출성형기(신제품이든 중고제품이든 상관없음)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수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에어필터 제조용 양철판 및 필터의 경우에는 T/T베이스로, 사출성형기는 L/C베이스로 지불 계획이다.

#### ■ 연락처

○ Competicion Automotriz S.R.L.

Joaquin Capeio #485, Santa Cruz, Miraflores, Lima 18

Tel : (51-1)440-1361

Fax : (51-1)440-1361(전화겸용)

Contact : Mr. Felix Lopez Vidal

### 체코업체, 폴리프로필렌 재료 구매희망

연 3,500톤 규모

체코의 Fine Polypropylene Fibre 제조업체



인 Trevos Textile사가 Polypropylene Grannulate를 긴급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용도 및 스펙

- Fine Polypropylene Fibre 압출용
- 1.5~6.7 dtex 위생용품 생산용
- Melt flow index : 20~30
- 기존사용 제품생산용 기계 : Rieter-automatic, Fleissner, Autefa
- 기존수입원자재(예) : Fina PP H 9069, Borealis HG 235 B2, Amoco 52923

▲수입가능물량 : 연 3,500톤

▲연락처

-Trevos Textile s.r.o  
 Tel : 0431-692351  
 Fax : 0431-692286  
 Contact : Mr. Ivan Rec

**일본, 고바야시 반송기기**  
 폐플라스틱 혼합 재생기술 개발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 여러가지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지만 기술적, 경제적인 면에서 사전선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품목의 종류가 다양하고, 플라스틱 제품 자체가 품질 향상을 위해 복합재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복합재질 자체로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복합플라스틱을 재활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복합재료의 문제점때문에 전체 폐플라스틱이 재활용율은 2할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복합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일본의 고바야시 반송기기는 캐나다의 에코발사와 공동으로 폐플라스틱의 혼합장치(K믹싱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칩 상태로 된 폐플라스틱을 고속회전시켜 그 마찰열로 용융, 재활용한다.

개발당시에는 폐플라스틱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재활용을 위해서 개발되었으나 고분자량의 수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합성수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용융된 수지는 반죽 직후의 떡 모양으로, 그 상태로 프레스 성형이 가능하며 또한 콤팩운드 제조도 가능하다.

이 기계의 특징으로는 이중(二種)의 폐플라스틱 혼합이 가능하며 용융시간이 20~30초로 단 시간이어서 제품의 열화가 적고, 1kg당 재활용비용은 24엔으로 종전의 1/3 이하이다.

이 회사에서는 시험제품으로서 1리터 사이즈의 믹싱기를 제품화하였으며 앞으로 40리터의 실용사이즈를 제품화하고 프레스장치와 조합시킴으로써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제품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유해물 PET로 투입**  
 오사카공업기술연구소 개발

오사카공업기술연구소에서는 폐PET를 중심으로 폐플라와 소각회를 혼합하고 있는 성형·중금속 등의 유해물을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양산성이 우수한 성형기로 조성시켜 도시쓰레기로부터 분별수집된 폐PET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처리사업에 하나로써 도입될 전망이다.

또 성형기에 의해 만들어진 페플라와 소각회의 합성석은 이슈톤이라 부르며 건재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본적인 기술로는 오사카의 유본포장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오사카공업기술연구소가 유본포장산업과 협력해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유본포장산업은 종래 PET를 주체로 한 보일러, 필름, 제조층 등을 회수·선별하고 재자원화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조층은 혼방품이 많아 원료별로 분리, 회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성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용융, 혼련하고 자갈상태로 성형하며 이 자갈은 성형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각회를 혼합할 수 있다. 이는 성형품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열전도율의 개량에 따라 냉각시간을 단축시키며 소각회가 포함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용출을 방지한다. 또 성형수축율의 감소에 따라 크래시발생 감소와 생산성(처리능력) 향상 등 여러가지 특징이 있다.

특히 소각회에서 유해금속의 용출 감소는 환경오염방지 면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돼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한 자료에 따라 소각회 1g으로부터 중금속이온수추출량이 64.8ppm 이하로 되고 이슈톤으로 처리할 때 추출량은 0.01ppm 이하로 돼 Ph도 12.8에서 7.6으로 거의 중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일본 국내의 산업폐기물에 있어 문제되고 있는 유해물의 관리형 처분장에 집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리형에 투입한 소각회, 비회의 리사이클

이 가능하게 되면 자치체에 있어서도 '처리비용의 소멸과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많은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금속·다이옥신 오염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기술적인 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 미국 Paxon사, HDPE 15만톤 증설 생산능력 90만톤 확대

미국의 Paxon사가 폴리에틸렌 사업확대의 일환으로 2001년까지 Baton Rouge에 HDPE 연산 15만톤을 증설할 계획이다.

동사는 1, 2기로 나누어 증설할 계획인데, 1기 생산능력은 12만톤 규모로 99년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2기 3만톤 설비는 2001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동 공장이 완공되고 2001년 이후 동사의 HDPE 생산능력은 현재 75만톤에서 90만톤으로 확대된다.

한편, Paxon사는 EXXON Chemical과 Allied Signal과의 50:50 합작회사로 설립되었지만, 96년 Exxon이 Allied Signal 전 주식을 매수해 현재는 Exxon의 100% 자회사로 되어 있다.

### 대EU수출 '포장재 비상' 기준미달시 통관불허, 벌금부과

올해부터 대EU수출시 현지 기준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관불허와 함께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KOTRA는 'EU의 환경친화적 포장재 사용



및 포장폐기물 수거, 재활용법 시행동향 및 대응 방안 자료에서 오는 7월1일부터 EU 15개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플라스틱, 골판지 등 모든 상품포장재에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 함량이 600ppm미만이어야 하며 이러한 함량기준이 내년 7월1일부터는 250ppm, 그리고 2001년 7월1일부터는 100ppm 미만으로 대폭 강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유통(수입통관) 금지와 함께 벌금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되어 우리 관련 업계의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 포장재 폐기물의 수거, 재활용이 의무화돼 포장재 원천제공자(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등)는 EU 15개 회원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량기준 포장재의 50~65%를 분리 수거하고 25~45%를 재활용(재질별 최소 15% 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이 결국 우리 수출업체에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

이미 유럽의 수입상들이 우리 수출업체에 수출상품 포장시 포장재에 각 재질별 분류표시 및 자신이 수입한 제품임을 나타내는 특정마크 표

시를 요구해 음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는 각각 수입상마다 다른 표시를 인쇄해야 하는 비용부담(한 마크당 대략 20~30만원 수준)을 안게 됐다. 더욱이 포장재 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지 유통, 수입업체들은 포장재 폐기물을 직접 수거, 재활용하기 보다는 현지 전문 수거처리 업체에 대행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거, 처리비용은 우리 수출업체에 전가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EU의 포장재법 시행과 관련 유럽업체는 공동연구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환경친화적이며 재생, 재활용이 쉽고 빠른 포장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EU의 중금속 함량 기준에 맞는 포장재는 이미 개발을 마치고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례로 TV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중 수거, 재활용이 어려운 스티로폴 등을 골판지로 대체했으며 종이에 비닐코팅된 비닐백은 종이, 비닐의 분리수거가 어려워 100% 종이백으로대

● 포장재 재질별 분류 표기 방법

재질구분	분류표시
화학포장재	PET는 1, HDPE는 2, PVC는 3, LDPE는 4, PP 5, PS 6
종이와 판지	골판지 20, 기타판지 21, 종이 22
금속	Fe 40, 알루미늄 41
목재	나무 50, 코르크 51
섬유	면 60, 마 61
유리	색유리 70, 녹색유리 71, 갈색유리 72
혼합물질	지와 금속 80, 지와 화학물질 81, 지와 알루미늄 82 지와 생철 83, 지와 화학물질과 알루미늄 84, 지와 화학물질 알루미늄과 생철 85, 화학물질과 알루미늄 90 화학물질과 생철 91, 화학물질과 기타금속 92, 유리와 화학물질95, 유리와 알루미늄 96, 유리와 생철 97, 유리와 기타 금속 98



● 각국별 포장폐기물 전문 수거 및 처리기관

국가명	수거 및 처리기관
독 일	Duales System Deutschland GmbH(DSD)
프 랑 스	Eco-Emballage
영 국	Valpark Ltd, Biffpack, Difpak, Wes Pecycleing, Jem Recycling Wsatepack, Fost Plus
벨 기 에	V.A.M, A.V.R
화 란	ARA(Altstoff Recycling Austria AG)
오스트리아	I/S Vestforbraending
덴 마 크	Vest Kraft, Middelfart forbraendingsanlaeg, I/S Amagerforbraending, Helsingor forbraendingsanlaeg
포르투갈	SPV(Sociedade Ponto Verde)-Sociedade Gestora De Residuos De Embalagens, S.A.
스 페 인	Scoembalages Espana S.A.
벨 기 에	Asbl Fost Plus Vzw
룩셈부르크	Valorlux A.S.B.L
아일랜드	Repark Ltd.
핀 란 드	Paperinkerays Oy, YTV, Sakkivahne Oy, Suomen Palpa Oy, G.W.Sohlberg Oy

● 각국별 처벌 규정

국가명	처벌규정
독 일	최고 DM 10만부까지 벌금 부과
프 랑 스	매 포장별로 F.Fr. 600~1,300 벌금 부과
영 국	최고 £ 5천까지 벌금 부과
벨 기 에	1개월~1년의 징역, B.Fr. 1천~200만 벌금 부과
이탈리아	중금속 용량요건을 어겼을 경우에는 Lit 1천만~6천만,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생의 %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Lit 1,500만~9천만의 벌금을 부과
스 페 인	매우 심각한 위반 : Pt. 1천만~1억 심각한 위반 : Pt. 100만~1천만 경미한 위반 : 최대 Pt. 100만
오스트리아	행정처벌(98년 7월부터 발효)
포르투갈	포장단위당 Esc100 벌금 부과
아일랜드	약식기소의 경우, 최대 1500 Irish Pound벌금 부과 정식기소의 경우, 최대 1천만 Irish Pound벌금 부과
핀 란 드	벌금부과, 영업행위 정지, 압류나 몰수

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골판지 등 포장재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량기준이 없는 우리의 경우 하루 빨리 EU의 중금속 함량

기준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하는 한편 나아가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개발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종이컵·도시락 생산설비

중국업체 국제입찰 계획

중국 중경시 機電設備招標公司是 종이컵 및 종이도시락 자동생산설비의 국제입찰을 실시한다.

1. 입찰공고서 번호 : CQ97041

2. 입찰설비 및 수량 : 종이컵, 종이도시락 자동생산설비 1세트

3. 입찰공고서 가격 : 830원 또는 100달러(우편 발송시는 국내는 50원, 외국은 50달러가 추가되며, 송금전표 팩스 접수 후 자료 발송)

4. 입찰공고서 판매기간 : 98년 2월 8일까지(매일 09:30~12:00, 14:30~17:30)

5. 입찰공고서 판매장소 : 中國 重慶市 南坪工貿大廈 8樓

6. 입찰마감 시일 및 장소

· 시간 : 1998년 2월 10일 09:00

· 주소 : 中國 重慶市 渝中區 臨江路 西來寺 4號 西南圖書大廈 11樓 會議室

### ■ 연락처

- 重慶機電設備招標公司開發公司

中國 重慶市 南坪工貿大廈 8樓(400060)

전화 : (86-23) 6281-3494

팩스 : (86-23) 6281-3494, 6383-0805

## 중국, 의약품 포장설비산업 취약

정부 중복투자억제, 필요설비 계속 도입

중국의약품관리국은 약품포장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포장재료 및 용기 사용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하고 각종 행정수단을 동원

해 노후설비를 개체시켜 나갔다.

그러나 대부분이 영세기업이고 동일분야에 대한 중복투자가 이루어져 일부제품은 설비부족으로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생산기술과 비효율적 관리로 인해 제약산업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특히 6·5기간(1981~1985)부터 8·5기간(1991~1995)까지 이루어진 맹목적인 투자로 많은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고, 이 기간동안 도입한 설비도 기능이 떨어지고 열악해 관련 산업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9·5기간(1996~2000) 및 2010년까지는 국가 의약국과 각 지역 의약관리기구를 통해 신규투자나 설비투자, 자금유입을 엄격히 관리해 중복투자를 억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약산업 발전에 필요한 설비도입이나 자금은 계속 지원할 계획에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진출노력이 필요하다.

각 의약품 포장제품별로 시장전망은 다음과 같다.

### · 젤라틴 캡슐

전국에 걸쳐 40개 기업, 150개 전자동 생산라인이(32개 라인은 중국제품, 118개 라인은 수입제품) 가동 중이다. 생산라인당 3억개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450억개의 생산능력을 갖춘 셈이다. 한편 원료인 제약용 젤라틴의 공급은 수요를 크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 고무패킹

하북성 석가장시, 상해시, 호북성 의창시, 강소성 등지에 13개 기업이 분포돼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130억개로 추산된다. 현재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배합기술이나 생산기술이 떨어지며 관련설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액





병 내의 고무패킹 제작기술은 9·5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알루미늄 합금 플라스틱병 마개

국내에 1개 라인이 수입됐으며 수액병 알루미늄 합금뚜껑의 생산능력은 연간 7억개이다.

이밖에 200여개 기업이 중국산 설비를 이용하고 있으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조악해 시설개체가 필요하다.

· 고체 약용 플라스틱병

국내에서 수입한 생산라인은 40개로서 고품질의 HDPE병 생산능력은 연간 7억개 정도이다. 이밖에 중국산 설비보유 기업이 200여개사 있으나 기술개조(설비개체)가 필요하다.

· 연고제용 알루미늄 튜브

수입설비로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알루미늄 튜브는 연간 8,303만개이며 이밖에 10여개 기업이 중국설비를 사용중이나 품질이 열악해 시설개체가 필요하다.

· 수액용기

고품질 II형 유리병의 생산능력이 연간 2억개에 불과해 신규설비도입 또는 기존 설비를 이용해 제품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제고가 필요하다.

이밖에 외국산 플라스틱 수액용기병 생산라인은 6개라인으로 연간 생산능력은 3,400만개에 달하나 생산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이 요청된다.

· 점적약용 플라스틱병

상해, 천진, 호북성 등에서 외국 설비를 수입, 제작중으로 현재 생산능력은 연간 2.85억개이다. 이밖에 자체 제작해 사용중인 기업도 있다.

· 내복액용 플라스틱병

수입생산라인이 1개 있으며 제약회사에서 자

체생산해 쓰기도 한다.

연간 생산능력은 2천만개로 생산능력 향상이 요청되고 있다.

**음료용기 제조기계 찾아**  
싱가포르사 중국공장 확장 위해

싱가포르 Wing Thye Loong Hang사가 중국 소재 공장의 확장을 위해 다음 기계를 한국으로부터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

· 품목

Full auto Easy opener filling & Sealing M/C

· Beverage Canning

· Easy Opener Type

· 분당 120 Can 제조

· 기술 이전비

- Mineral water auto filling, Sealing & Labelling M/C

· PVC, PET병

· Mineral water Production

· 분당 120병 제조

· 600, 1,250, 1,500ml

· 기술이전비

· 요망사항

상당자료 송부(카탈로그, 가격표 등)-기계이전비 별도 제시, A/S 방안 등 설명

■ 연락처

· Wing Thye Loong Hang Pte Ltd.

150 South Bridge Road, #10-01, Fook Hai Building, S' Pore 058727

Tel : 65-534-1433

Fax : 65-533-1095



### 태국, 종이·펄프 60% 수입의존 고급품시장 공략 바람직

94년까지 태국에는 18개의 펄프제조업체가 연간 165천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37개의 제지업체가 연간 31만1천톤의 펄프를 사용하고 있어 상당량의 펄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업체가 펄프제조에 참여해 96년 총 펄프생산규모는 95년 대비 89% 증가한 626톤에 육박했다.

태국의 96년 펄프수요는 71만6천톤이나 2001년까지 120만6천톤으로 연간 11%의 증가가 예상된다. 펄프 가격은 95년말부터 하락했으나 96년 중반부터 가격이 인상되기 시작했다. 한편 96년 종이 수요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224만8천톤에 달했으며, 종이소비 중 47%는 크라프트지, 인쇄용지 18%, 신문용지 16%, 판지 11%, 가정·위생용지로 나머지 3%가 사용됐다.

태국의 종이수요는 매년 9~11%가 증가돼 2001년에는 39만톤으로 전망된다. 96년 종이 소비는 약 20억7천6백만달러로 전년대비 6%정도 감소했으나 이는 95년말부터 가격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94년부터 국제 펄프 및 종이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이 품목은 상무부내 국내 교역국의 관리품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각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변동시키고자 할 경우 가격통제 및 독과점방지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펄프 및 종이의 경우 태국 총수입의 약 6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96년 34만5천톤의 수입을 기록했다. 88년 이래 펄프수입은

### · 수입실적

(단위 : B백만)

국 별	1994	1995	1996	97.1~9
펄 프				
미 국	1,186	1,477	2,090	1,330
캐나다	897	1,606	21,268	1,031
뉴질랜드	341	380	325	185
브라질	410	569	273	215
칠 레	475	868	587	254
남아공	143	1,164	777	836
총 계	5,406	9,122	6,835	
종 이				
미 국	1,662	2,018	2,674	1,801
일 본	2,862	3,399	2,823	2,178
총 계	14,637	19,407	17,348	

(자료 : 태국 관세청, 상무부 경제국 통계)

매년 평균 24%씩 증가했으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칠레, 브라질, 뉴질랜드, 스웨덴, 인도네시아, 스위스이다.

96년 종이수입은 46만9천톤으로 주수입품목은 신문용지로 총수입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이 인쇄용지로 15%, 판지용으로 14%, 크라프트용지 7%, 가정용 및 위생용지 2%, 기타 18% 등이며 수입관세율은 5~30%이다.

태국 재무부는 95년 1월1일부터 펄프와 종이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종전 10%에서 7%로 인하했다. 종이제품의 경우 3%의 원자재수입관세 인하는 약 2.4%의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 태국은 주로 비아세안 국가인 칠레,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어 CEPT협정에 따른 아세안 특혜관세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